■ 03. 안악 3호분, 북한국보유적 제67호

<유형문화유산-고분유적-고구려-봉토석실분-벽화고분-인물풍속도>

유적명	안악 3호분	주변유적	안악 1호분, 2호분
소재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	시대	고구려
조사일시	1949, 1957	조사기관	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1949)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7)

무덤방향	남향	구조	다실분	벽화내용	인물풍속
봉분형태	방형	봉분(cm) (길이×너비×높이)	3300×3000×600		-
연도위치	전실 남벽 좌치중	연도(cm) (길이×너비×높이)	217×212×324	연도천장	-
전실위치	연도와 현실 사이	전실(cm) (길이×너비×높이)	488×273×347	전실천장	평행삼각고임천장
측실	전실 양쪽 벽	측실(cm) (길이×너비×높이)	좌: 323×170×275 우: 299×127×297	천장	평행고임천장
현실위치	반지하	현실(cm) (길이×너비×높이)	380×332×280	현실천장	평행삼각고임천장

유적 설명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위치한다. 1949년에 최초 조사된 후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에 재조사되었으며 2004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실과 측실, 현실과 회랑이 있는 구조의 인물풍속도가 그려진 봉토석실분이다. 묘주와 묘주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비롯하여 부엌, 도살실, 차고, 행렬도 등의 벽화는 당시 고구려의 사회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벽화는 회를 칠하지 않고 돌벽 위에 직접 그렸는데 벽에서 발견된 ‘영화(永和)13년’ 묵서명을 근거로 고분의 축조시기를 고국원왕 27년인 357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장자는 중국계 동수라는 견해와 고국원왕 혹은 미천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초기에 미천왕릉이라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고국원왕릉으로 보고 있다. 후실의 동벽과 북벽에는 250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규모 행렬도를 그렸으며 벽화의 장면마다 사람의 직명이나 장면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다.

출토 유물
 철제관정, 철모, 철판, 회색접시(3), 회색보시기(2), 흑회색호(3)

특이사항
 1. 전실과 측실이 있는 중실, 회랑과 후실로 이루어진 안악3호분의 구조는 지금까지 확인된 고구려 벽화고분들 중에서도 유일한 것이다.

관련 문헌

도유호, 1949,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고분들, 문화유물 1949-1
 리여성, 1949, 최근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고분의 벽화와 년대에 대하여, 역사문제제 9
 안악 3호분의 연대와 그 피장자에 대한 학술토론회 (1957)
 김용준, 1957, 안악 3호분(하무덤)의 연대와 그 주인공에 대하여, 문화유산 1957-3
 과학원출판사, 1958, 유적발굴보고 3
 전주봉, 1959, 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 - 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1959-5
 주영현, 1963, 안악제3호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
 전주봉, 1963, 다시 한번 안악의 왕릉을 논함 - 미천왕릉의 타당성을 증명함, 고고민속 1963-2
 박윤원, 1963, 안악3호분은 고구려 미천왕릉이다, 고고민속 1963-2
 박황식, 1965, 미천왕무덤(안악제3호)의 건축구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1
 허순산, 1985, 고구려의 금귀걸이, 역사과학 1985-4
 천석근, 1986, 안악 제3호 무덤벽화의 복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3
 박진옥, 1990,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류 열, 1992,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과 4세기 고구려의 남평양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역사과학 1992-2
 송순탁, 2005, 태성리3호무덤 및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재검토, 조선고고연구 2005-3
 김성철, 2006,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의 동수무덤설에 대한 비판, 조선고고연구 2006-3
 최우선, 2009, 『조선고고학전서』 33-고구려 벽화무덤(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